

# '전주세계소리축제' 새로운 변화 도전

### 개막공연 맞춰 KTX '소리축제열차' 운행·협업 등 다채 15~24일 해외 11개국 89개 프로그램 총 108회 공연 진행

전주세계소리축제조직위원회(조직위원장 이왕준, 이하 소리축제)는 오는 15일 소리축제 개막을 앞두고 이를 전국적으로 알리는데 총력을 펼치고 있다.  
7일 소리축제에 따르면 올해는 15~24일 열흘간 '상생과 회복(Coexistence and Resilience)'을 키워드로 해외 11개국, 89개 프로그램에 총 108회 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특히 코로나 이후 처음 열리는 전면 대면 축제인 만큼, 축제에 더욱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최고의 예술가들과 공연으로 라인업을 구축하고, 또 전주한옥마을의 역사적 명소를 결합한

특별 기획공연을 기획하는 등 새로운 변화를 꾀했다.  
먼저, 서울과 전주를 잇는 KTX열차를 이용해 개막공연을 관람할 수 있도록 준비했다. '소리축제열차'는 사전예약 관람객뿐만 아니라 주한외교사절단과 기자단, 예술가 및 공연관계자 등도 함께 탑승하게 된다.  
이와 함께 외연 확장에도 힘썼다. 타 기관과의 협업으로 공연을 공동 제작하는 등 이전에는 시도하지 않았던 색다른 방식으로 소리축제의 입지를 새롭게 다지고자 했다. 특히, 국립극장과 지난 4일 진행한 업무협약은 이러한

일환 중의 하나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공동 작품 제작 추진, 상호 협력을 통한 공동사업 개발, 예술인력 지원 및 인적 교류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이왕준 조직위원장은 "전통예술을 기반으로 한 공연예술 분야에서 오랜 역사와 훌륭한 인프라를 갖고 있는 국립극장과 업무협약은 소리축제의 외연을 한층 더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이를 초석으로 내년부터는 타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축제의 리더십을 한층 더 키우고 발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소리축제는 올해 국립부산국악원,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사)강릉단오제위원회, (재)월드뮤직센터, 전주기전대학, 폴란드 IAM, UAE 아부다비문화관광국 등과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장은성 기자



전북여성가족재단, 찾아가는 시니어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진행  
7일 임실군북부권노인복지관 이용 어르신 60여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양성평등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 흥 넘치고 놀거리 가득... '제31회 흥부제'

### 남원시·흥부제전위원회, 내달 7~9일 사랑의 광장 일원서 개최

남원시와 흥부제전위원회(위원장 이동식)는 오는 10월 7일부터 9일까지 사랑의 광장 일원에서 제31회 흥부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제31회 흥부제의 목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야말로 흥이 넘치고, 놀거리 가득한 축제, 화려한 공연으로 흥을 돋우고 가득한 놀거리로 재미를 느끼게 하는 다른 어느 해보다 특별한 의미를 가진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먼저, 축제의 막을 여는 개막식으로 눈여겨 볼 점은 예년처럼 다채로운 공연을 우선으로 1명만 수여했던 흥부가족상의 격을 높여 흥부제 정신인 우애, 보은, 나눔 이렇게 3분야로 나누어 각각의 분야에서 시민들의 귀감이 되는 후보자를 추천받아 각 1명씩 총 3명에게 수상할 예정이다.  
또한 흥부전을 다양한 장르로 만날 수 있는 테마흥부전도 새롭게 준비, 물질만능의 세대를



흥부전 스토리에 담아 인기 트롯가요로 구성하여 만든 뮤지컬인 M2흥부전, 박력있는 태권도 공연에 흥부전을 담은 태권 흥부전, 그리고 전통 국악으로 흥부전을 즐길 수 있는 전통창극 흥부전, 마지막으로 모래를 이용해 흥부전의 명장면을 연출하는 샌드아트 흥부전이 진행될 예정이다.  
흥이 넘치는 축제를 위한 다양한 공연으로,

여러 지역의 무형문화재 공연들을 한 자리에 모아 놓은 남원문화공연에서는 진주갈춤, 양산별산대, 남원농악을 한 자리에서 감상할 수 있으며, 그리고 블루스밴드, 전통무용, 판소리 콜라보공연인 ATS 밴드공연과 싱가포르 최대축제인 칭게이 퍼레이드 초청 댄스팀인 포스댄스컴퍼니의 댄스퍼레이드 또한 관객들의 흥을 돋울 예정이다.  
특히, 흥부 정신을 만끽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과 연계행사도 다양하게 준비했다. 먼저, 비빔밥 1만개를 나누면서 펼치는 흥부비빔밥 나눔행사와 인기가수 나태주, 박군과 함께하는 시민 노래자랑은 물론 남원시 흥부대사 김범준씨와 함께 하는 흥부놀이 명랑운동회도 진행된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10월에는 세계드론제전과 남원문화재야행도 함께 개최되는 만큼 많은 방문객들이 축제기간 동안 풍성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즐길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북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 추진 협약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 3개 기업과 체결  
전북관광기업지원센터는 '2023 전북 관광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사업'에 참여할 3개 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관광기업이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산업에 적응하고, 미래의 디지털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전라북도에서 3년

이상 관광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체로,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지속성 등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됐다.  
선정 아이টে็ม으로는 '청년마을테마파크'의 체류형 관광객을 위한 로컬 스테이 상품 서비스 개발과 온라인·모바일 기반 홈페이지 고도화, '전주전통술박물관'의 온라인 VR 전시관을 포함한 반응형 웹사이트 구축, '애니설리반학교'의 로컬 여행 업체를 연결한 네트워크 신규 웹사이트 제작 등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상시컨설팅 및 사업과 지원금 2,000~2,5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장은성 기자

# 제16회 전북여성영화제 희허락락

### 양성평등주간 맞아 9일까지 진행

전북도과 사단법인 전라북도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박영숙, 송경숙, 이영진)이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메가박스 전주 객사점에서 제16회 전북여성영화제를 열고 있다.  
이번 영화제의 슬로건은 '지워지지 않는'이며, 개막작인 '어쩌다 활동가'를 포함해 총 11편의 영화가 무료 상영될 예정이다.  
올해로 16번째를 맞이하는 전북여성영화제는 영화감독 및 배우와의 대화를 통해 영화의 뒷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올해 영화제 슬로건에 맞닿은 주제를 다루는 '시네마 토크(TALK)'가 진행된다.  
둘째날인 8일에는 새만금 마지막 갯벌이 이야기 '수라', 나눔의 집에서 함께 살아가는 할머니들의 일상과 그 일상에 스며있는 슬

픔을 이야기한 변영주 감독의 '낮은목소리' 2' 상영 후 감독의 마스터 클래스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제25회 서울국제여성영화제에서 박남옥상을 받은 '두 사람을 위한 식탁',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 단편 경쟁 부문에서 최초로 다큐멘터리 영화 대상을 받은 '빈의 뜨개질'도 상영될 예정이다.  
모든 영화는 무료로 상영되며, 구름로 예약하여 당일 선착순 좌석을 배정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김관영 도지사는 영상축사를 통해 "전북여성영화제가 여성과 소수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창구로, 전북 여성영화인들의 자아 실현을 위한 무대로, 단단하게 자리매김해 왔다"며, "많은 분들이 전북여성영화제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 엄마 예술인 단체 '쏘노꾼떼' 두 번째 포럼 개최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운, 이하 재단)의 '2023년 도민주도 정책 토론장' 사업에 선정된 운영단체 중 하나인 엄마예술인 단체 '쏘노꾼떼'가 두 번째 포럼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8월 24일 전주 예인아트홀에서 개최한 제1차 토론회는 '예술가로 남고 싶은 엄마'란 주제로 여성예술인의 경력단절 이야기를 들어보고, 경력복귀를 위한 정책적 지원사업의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2차 토론회는 9일 오후 3시 원주 우드러팜 체임카페에서 '문화 다양성의 주체로서 엄마 예술인에 대한 이야기'를 주제로 자유토론이 이어진다.  
자유토론의 진행은 김치미(예술단체 블레싱 대표)가 맡으며, 김준화(다문화사회전문가 및 군장대학교 겸임교수)이 발제자로, 정수희(광주교육대학교 외래교수)와 한승지(유)위시아



트랩 대표이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참가 문의는 이메일(seonhui0313@gmail.com)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전주매일 캠페인

# 고스란히 남아있는 백제 장인의 숨결

#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익산 왕궁리 유적에 있는 오층석탑이다. 1965년부터 1966년에 보수를 위한 해체와 복원을 실시하였고 이때 흙 속에 묻혀 있던 돌로 만든 기단부가 발견되었다. 1층 옥개석 상면과 기단부 심초석 상면에 마련된 사리공에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 사리장엄구 '국보 제123호'를 수습하였다. 창건에 대한 문헌 기록이 없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된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의 건립 연대는 백제 시대에서 통일신라, 고려 시대 초까지 논란이 다양하다. 1939년부터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을 중심으로 본격적 발굴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백제 시대에 경영되었던 궁성이 폐기되자 궁성 터에 탑·금당·강당을 남북 일직선으로 배치한 백제의 전형적인 1탑 1금당식 사찰을 지은 것으로 밝혀졌다. 본래 목탑이었던 것이 현재의 석탑으로 바뀌었고 백제 멸망 이후에도 범등을 계속 이어 갔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익산 왕궁리 오층석탑은 1963년 1월 21일 보물 제44호로 지정되었고, 1997년 1월 1일 국보 제289호로 승격 지정되었다가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국보로 재지정되었다.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향토문화전자대전